

# 주름살 제거 불법시술 일가족 4명 피부 과사 부작용 피해

### 경찰, 간호조무사 출신 무면허 업자 검거

불법 성형 시술로 80대 어머니와 세 딸 등 일가족 4명이 심한 후유증으로 시름에 젖어있다.

주부 A(50·광주시 서구)씨가 간호조무사 출신 무면허 성형업자 진모(여·41·광주시 서구 쌍촌동)씨를 만난 것은 지난 9월 중순. 동네 미용실 아줌마들의 소개를 받은 것이다.

진씨는 "60만~70만원이면 감쪽같이 얼굴의 주름살을 제거할 수 있다"고 유혹했다. 큰딸인 A씨는 한 동네에 사는 어머니(81)와 둘째(48·주부), 셋째(41·주부) 여동생에게도 연락해 "함께 수술받자"고 제안했다. 노모는 "이 나이에 무슨 짓이냐"며 거절했지만, 딸들이 나서 설득했다.

진씨도 "모두 200만원이 넘지만 160만원에 해주겠다"고 나섰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 자매들은 동사무소 공공근로를 해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수술을 하기로 했다.

가족들은 약속한 날짜에 광주시 서구 화정동 D아파트 남동생 집에 모였다. 진씨는 1회용 주사기로 A씨 등의 양쪽 볼에 차례로 콜라겐(collagen·고체 성분의 단백질)을 주입했다.

A씨는 다음날부터 이상을 느꼈다. 사흘째 되는 날엔 얼굴이 가렵고, 종기도 났다. 종기는 일주일 만에 호두알만 큼 커졌다. 어머니와 여동생들에게도 피부 과사(壞死) 현상이 나타났다.

A씨가 항의하자, 진씨는 콜라겐을

제거한다며 스테로이드 성분의 약물을 주입하고, 항생제도 먹였다.

가족들은 뒤늦게 전남대병원을 찾았지만, 담당의사는 콜라겐이 온몸에 퍼져있어서, 부작용이 나타날 때마다 제거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술비는 형편이 어려운 A씨 등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광주 '맑은 피부과' 신상식 원장은 "콜라겐 시술은 부작용이 많아 성형외과에서 하지 않으니 오래됐다"며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류 장애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 서부경찰은 17일 지난 6년 동안 불법 성형수술을 해 온 진씨를 보 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입건,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인현주·이은미기자 ahj@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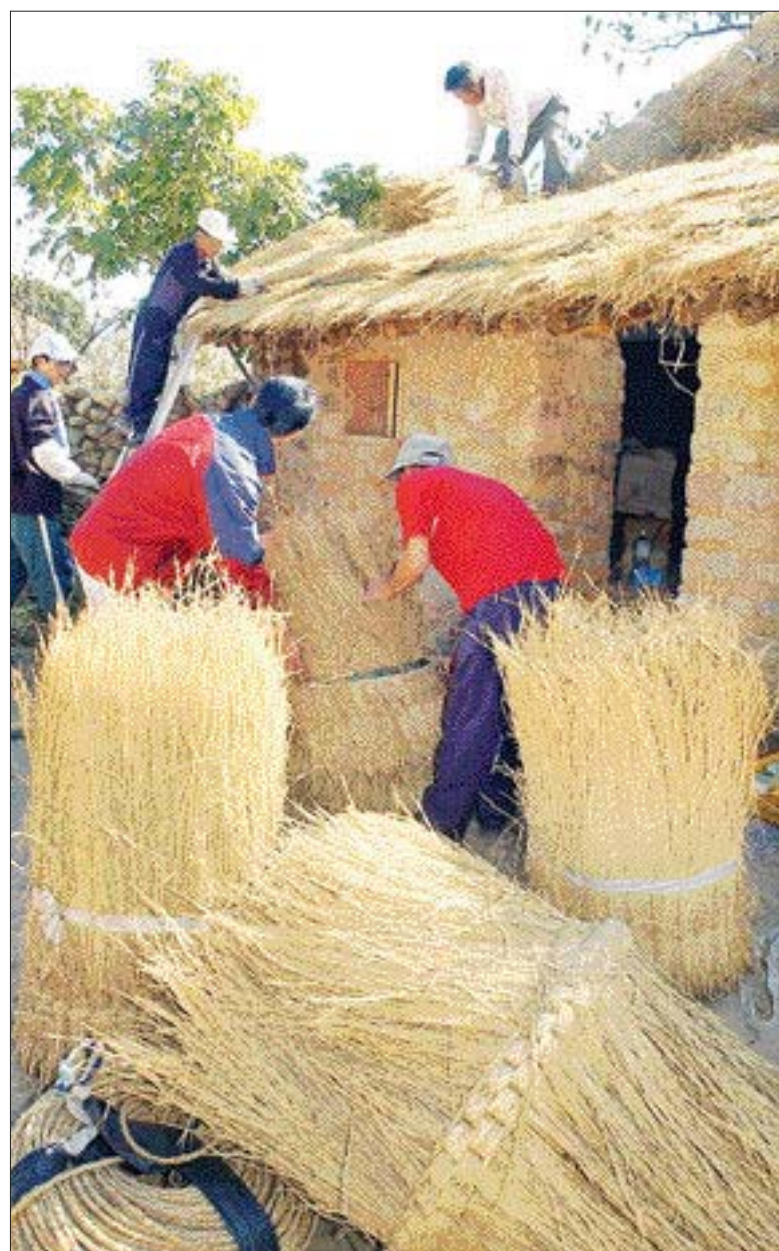
## ■ 불법시술 실태 광주·전남서 올 22명 적발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무면허 성형 시술로 경찰에 적발된 사람은 모두 42명. 올해도 9월 말 현재 22명의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도시에 성형외과 간판을 버섯이 내걸거나 주부들이 많이 모이는 미용실·피부관리실·찜질방 등을 돌며 비밀 영업을 하고 있다. 불법 성형 시술 종류는 눈썹문신·주름제거·지방제거·유방 확대 등 신체 특정 부위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다. 가격은 전문 병원보다 두세배 가량 싼 15만~300만원대.

무면허 시술이 성행하는 이유는 비싼 수술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수요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 행위를 할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



낙안읍성의 겨울준비  
순천 낙안읍성 주민들이 추운 겨울철에 대비, 빗집으로 초기지붕에 이엉을 엮고 있다. /순천=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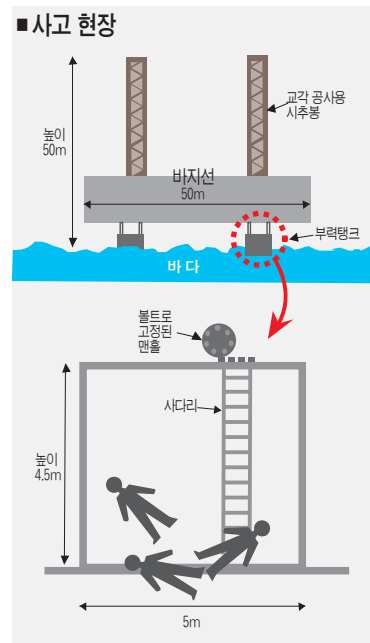
# 조선소서 인부 3명 질식사

### 목포시 산정동, 바지선 부력탱크 점검 중

바지선을 물에 뜨게 하는 부력(浮力) 탱크를 수리하던 조선소 협력업체 사장 등 3명이 유독가스에 질식사했다.

17일 오전 9시40분께 목포시 산정동 산정농공단지 내 선박수리업체(유)현성산업에서 1천847급 바지선(barge船) 부력 탱크에 들어간 문모(37·화성기공 대표)·박모(33)씨가 질식사해 쓰러졌다. 탱크 밖에 있던 김모(44)씨는 다른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문씨 등을 구조하려다 함께 변을 당했다.

사고가 난 부력 탱크는 가로 5m·세로 30m·높이 4.5m 크기로, 평소 비어있는 상태. 문씨 등은 이날 도크(dock)에 정박 중인 바지선의 수리 및 견적을 산출하기 위해 부력 탱크의 출입구인 맨홀을 통해 내부로 들어갔으나, 처음 10분간 맨홀 뚜껑을 열어둔 것 외에는 산소마스크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



■ 사고 현장  
사도가 나자 조선소 측은 공기압축기로 산소를 공급하고, 119구조대와

목포해경 122구조대가 탱크에 들어가 문씨 등을 구조, 인근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3명 모두 끝내 소생하지 못했다.

목포해경은 지난 1985년 제작된 탱크 내부 철관 등이 심하게 부식하면서 유독가스가 발생한다. 산소 부족으로 이들이 질식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또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국과수에 유독가스 성분검사를 의뢰했으며, 18일 중 반대편 부력탱크 내부의 산소량 등을 측정기로 했다.

해경과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은 조선소 현장소장 김모(59)씨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안전기준 위반 등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재해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사고가 난 바지선(가로 50m·세로 30m·높이 50m)은 서울 소재 성기초건설(주) 소유로, 부산의 교각 건설 현장에 투입됐다가 수리를 위해 4개월 전에 목포로 예인됐다. /목포=이상훈·안현주기자 lsh@

## 니원침 (7334) 김중두



## 개·닭 마취시켜 훔쳐

### 40대 2명 보신탕집 주인 신고로 '덜미'

개와 닭을 마취시켜 훔쳐온 신종 절도범들이 꼬리를 잡혔다. 폭력 등 전과 14범인 한모(44·광주시 북구 임동)씨와 후배 김모(41·" 서구 화정동·전과 6범)씨는 여름철 복날이 다가오자 개값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씨 등은 길이 45cm·지름 1.5cm의 마취총(쇠파이프)과 마취약(x·x·콜린), 주사기·공기 압축기 등을 구입했

다. 이들은 지난 7월31일 오후 5시 30분께 화순읍 화순을 동구리 김모(54)씨 집에 있는 개 2마리에게 마취총을 발사, 트럭에 싣고 가는 등 광주·화순·보성 등지에서 아홉 차례에 걸쳐 개 10마리와 닭 2마리(시가 90만원 상당)를 훔쳤다. 경찰이 압수한 증거물은 마취총 1개·마취탄 5개·마취약 8병·압축기 1개·주사기 3개·주삿바늘 50개

등 14종. 실험 결과 한씨 등이 사용한 마취총은 4~5m 전방에서 입으로 불어 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슴농장에서 녹음을 자를 때 마취총을 쓰는 것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으며, 한번 발사시 치사량(0.08g)에 가까운 마취약(적정량 0.03g)을 사용, 개가 '깍소리'도 못하도록 한 뒤 주인 몰래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 등은 개를 시가보다 싸게 파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보신탕집 주인의 신고로 절도행각이 들어나 17일 특가범위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 음란 채팅 유혹에 빠진 성직자 여자 행세 男에 수천만원 뜯겨

가톨릭 성직자가 음성변조기를 이용해 여자 행세를 한 남성과 음란 채팅을 즐기다 돈을 뜯겼다.

17일 서울 동작경찰에 따르면 한 인터넷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다른 남성들과 채팅을 즐겨오던 A(46)씨는 2005년께 한 인터넷 미

팅 사이트에서 가톨릭 신부 B씨를 알게 됐다.

음란한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던 A씨는 '성기를 찍은 사진을 보고 싶다'고 했고, '유혹'을 못 이긴 B씨는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보냈다.

A씨는 B씨에게 "성직자 신분으로 음란 채팅을 하고 성기 사진까지 찍어 보낸 사실을 언론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20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금품을 뜯어갔다.

이 사실이 교단 윗선에 보고될 경우 성직자 회의에서 중징계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한 B씨는 한동안 전전긍긍하다 경찰의 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기소종지된 A씨를 붙잡아 17일 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 /연행뉴스

다들 권하는 신임재 KCC

DS건설(주) KCC철도, 철도, 도로, 대터널

KCC철도, 시스텔형호 생산·시공

(주)본드나리 KCC철도, KCC철도, KCC철도, KCC철도

실리콘·방수제·합착제·타이브

배 훔치고 고기까지 팔아먹은 선원

○선주 몰래 배를 몰고 달아난 뒤 배에 실려있던 고기까지 팔아먹은 선원 3명이 해경에 덜미.

○목포해경은 17일 신안선적 9.77t 연안자망 A호 선원 이모(41·신안군 임자면)씨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달 17일 오후 1시30분께 영광군 안마도 선착장에 정박 중인 A호 선주 함모(38)씨의 허락없이 어선을 전북 무안군 위도면 벌금 선착장까지 몰고 달아났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고된 뱃일에 싫증이 나와 도피 자금 마련을 위해 그동안 잡은 병어·사대·꽃게 등 시가 272만원 상당의 어획물 15상자를 마을 주민들에게 팔아 모두 유혹비 등으로 탕진했다. /목포=이상훈기자 lsh@kwangju.co.kr

경석현 유럽명품갤러리 OPEN

서울은원동 상촌기구를 광주급노트로 옮겼습니다.

OPEN 이벤트

1. 기념 특가판매

2. 구매고객에게 시은품 증정

개장일: 2007년 10월 18일(목요일)

3층: 유럽명품관

2층: 갤러리

1층: 명품관

경석현 유럽명품갤러리 (062) 515-8045